

전남 사과·단감, 농협 계약재배 '0' 판로 어려움

사과 올 4200t 수확 예상...장성·곡성 사과 경북에 인지도 밀려 3만1325t 생산 단감도 전무...배는 계약금액 298억 전국 2위

■ 농협별 배 재배 계약금액

〈올해 기준, 단위: 원〉	
충남본부	366억
전남본부	298억
경기본부	106억
전북본부	11억7000만
충북본부	11억5100만
경북본부	7억7700만
합계	802억

(자료:농협중앙회)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사과가 대구·경북지역 사과에 밀려 안정적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4200t의 사과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지역 단감 농가 역시 계약 재배는 전무했다.

“계약 재배”는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형식으로, 농업인이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1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올해 사과는 4252t(재배면적 557ha), 단감은 3만1325t(2500ha)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과 달리 가까운 전북 장수와 충북 충남 등지는 사과 계약 재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충북원협은 5437t에 달하는 사과를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하기로 했고 ▲충남 예산농협 2141t ▲전북 장계농협 1593t ▲장수농협 1055t 등을 계약 맺었다. 이들 지역농협은 지난 달 대풍 ‘링링’의 영향으로 계약 물량의 30%에 달하는 낙과 피해를 봤지만 총 500t에 달하는 사과를 가공용 수매물량으로 배정받았다.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 측은 ‘부족한 생산량’을 내세우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대형 마트 등 유통매장이 1년 365일 상시적으로 공급받을 만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농협이 선뜻 전남 사과 농가에 계약 재배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비해 장성·곡성 등 전남 대표 사과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계약 물량 1위를 충남에 내줬다.

올해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배 재배 계약금액은 298억2100만원으로 전국 계약액 802억원의 37.1%를 차지했다. 충남지역본부는 전남 계약금액의 1.2배에 달하는 366억원 어치를 계약해 1위를 기록했다. 전남 계약금액은 2016년 264억원→2017년268억원→2018년278억원→올해 298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충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나주배원농협 8036t, 나주 봉황농협 1216t, 마한농협 1204t, 순천농협 1109t 등 1342개 농가와 1만6365t의 배 재배 계약이 체결됐다.

광주원농협 관계자는 “장성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제외하고는 전남지역에서 사과를 항상 신선한 상태로 공급할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며 “대형 유통 시설과 안정된 과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 배는 계약 재배가 꾸준히 이뤄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7.94 (-4.89) ↑ 금리(국고채 3년) 1.38 (+0.06)
- ↓ 코스닥 649.29 (-2.67) ↓ 환율(USD) 1187.00 (-0.80)

광주과학관 42억 등 72억 규모 물품 입찰

광주조달청, 25일까지

광주지방조달청이 72억원 규모 물품 입찰을 오는 25일까지 집행한다.

17일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광주조달청은 오는 21~25일 26건에 대한 72억원 규모 입찰을 집행한다.

광주조달청의 이달 넷째 주 입찰규모는 전체(2182억원)의 3.2%로, 올해 누계분

점유율은 6%이다.

주요 입찰 내용을 보면 국립광주과학관은 ‘어린이 과학체험관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추정 가격은 42억 6000만원이다. 또 광주·전남 등 시도별 ‘2019년 정부양곡 포장재’에 대한 26억 4600만원 규모 입찰을 적격심사 형식으로 집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전 돼지 사육 수 최다

3분기 광주·전남 4.2%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직전 돼지 사육 마릿수가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이하 9월 1일 기준)에는 광주 7779마리, 전남 117만4435마리 등 전국에서 총 1171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광주·전남 사육 돼지는 118만 2214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3만 4362마리) 보다 4.2% 증가했다.

광주·전남 사육 돼지는 지난해 4분기 111만7500마리에서 올해 1분기 111만 2100마리로 줄어든 뒤 3분기째 오름세다.

전국 사육 돼지는 지난해 동기보다 0.6% 증가한 1171만3000마리로, 198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통계 당국은 “어미돼지 수는 다소 줄었지만 한 마리당 분만한 새끼돼지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통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9월17일 이전에 집계된 관련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살처분되거나 정부가 수매한 돼지는 전체의 1~2%가량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광주·전남에서 사육되는 한·육우는 53만7500마리, 젓소 3만800마리, 닭 2104만마리, 오리 504만8200마리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중소기업역사와 ‘성과 공유 아카데미’

한전KDN은 17일 중소기업역사와 ‘2019년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나주시시호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성과공유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사간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우수 성과공유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한전KDN 협력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동반성장 전문가 특강, 협력사간 애로사항 해결 및 소통의 시간 등이 진행됐다.

18일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

한 해외수출 지원 아카데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KDN은 현재 약 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과 ▲협력연구개발사업 ▲에너지ICT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중소기업ICT 직무교육 등 금융·기술·경영·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병우 상생경영처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IC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장은 필수”라며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며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페이’로 간편 송금 하루 2000억...61% 증가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이하 하루평균)은 200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0.7%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218만건으로 같은 기간 34.8% 늘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금액이 상반기 기준 1879억원(93.7%)으로 전체 이용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실적이 크게 성장했다.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1628억원으로 전기 대비 15.8% 늘었고, 이용건수는 535만건으로 전기 대비 18.2%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물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액은 작년 하반기보다 12.9% 늘어난 4868억원이었고, 이용 건수는 15.9% 증가한 1018만 건이었다.



‘햇 알밤’ 맛보세요 (※광주신세계는 17일부터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광주 옥광 ‘햇 알밤’(100g 1500원)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호남·제주권 하나로마트 실무자, 수도권 유통매장 견학

호남·제주권 농협 하나로마트 실무자들이 수도권 선진 유통매장을 견학했다.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17일 서울 교육청 정독도서관에서 하나로마트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멘토링지원단 워크숍 및 착화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멘토링지원단’은 호남·제주권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등 실무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멘토링을 통해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 선진 유통매장 견학을 하며 하나로마트 발전방향 및 향후 멘토링지원단의 추진방향, 활

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강진우 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멘토링지원단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신발을 신겨주고 끈을 매어주며 격려했다.

이당우 멘토(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멘토링 지원단의 핵심기능은 마트사업 실시간 지도·지원”이라며 “멘토링을 통해 마트가 개선될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